

# 한국수어에서 관용어와 다의어 구분 문제\*

-[강하다]를 중심으로-

남기현

(연세대학교 강사)

## <Abstract>

**Nam Ki-Hyun, 2021.** A study on classification of idiomatic phrases and polysemous signs in Korean Sign Language - Focused on the [GANGHADA]-. *Korean Semantics, 74*. This study proposes the necessity of division between idiomatic phrases and polysemic signs in Korean Sign Language(KSL). We recognize as a problem that, in the meaning review of KSL idiomatic phrases, dependence on correspondent expressions of Korean language was traditionally found high. We discovered individual meanings for [GANGHADA] in the context. As a result, [GANGHADA] possesses five semes: 'hard(robust)', 'strong', 'rare occurrence of change of situation', 'no problem(confident)', and 'mentally strong.' Also the phrases [GOJIB] [GANGHADA] 'stubborn' have the definition of 'not yield one's ideas or will.' To judge [GANGHADA] as either polysemic sign or homographic sign, etymology was employed as the standard. In KSL there are found many signs that are generated based upon iconicity. If target signs have common origin of iconicity, they can be judged as having the same root. However, in judgment of homographic signs, [GANGHADA] has the same manuals but different non-manuals. So they can be seen as separate lexemes with different origins. However, The non-manual element of [GANGHADA] should be dealt with at a pragmatic level by revealing the speaker's feelings, feelings, and thoughts when expressing [GANGHADA] rather than functioning at the word level. Consequently [GANGHADA] shares both the semes of

---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 (NRF-2019S1A5B5A07092761)

concrete strength and abstract strength. Common attributes of 'strong' exist for these semes; they can be seen as polysemic signs.

핵심어: 다의어(polysemic sign), 동형이의어(homographic sign), 관용표현(idiomatic expression), 관용어(idiom), 단의( seme), 의미적 연관성(semantic correlation), 공통 속성(common attributes), 도상성(iconicity), 시각적 이미지(visual image), 어원(etymology), 한국수어(Korean Sign Language)

## 1. 서론

한국수어에서 관용어<sup>1)</sup>를 독립된 주제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손천식(1999)과 김칠관(1999a, b)으로 두 논의 모두 협의의 관용어로 고찰하였다. 손천식(1999)은 국어 관용어의 다섯 가지 성립요건-차용성, 동의성, 은유성, 대중성, 고정성-을 한국수어 관용어에 적용하여 한국수어는 앞의 네 기준은 준수하지만, 마지막 기준인 고정성의 제약은 덜 받는, 비교적 자유로운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국어에서 관용어의 고정성은 '특정 어휘나 둘 이상의 어휘 요소들이 긴밀하게 통합되어 대치나 어순 바꾸기나 꾸밈말 덧붙이기 등의 변형에 제약을 받는, 즉 일종의 틀에 박힌 고정된 표현이 되는 특성'을 뜻한다(손천식, 1999: 37). 한국수어 관용어가 국어 관용어의 고정성과는 그 성립요건을 달리한다는 손천식(1999)의 주장을 아래 문장을 통해 살펴보자.<sup>2)</sup>

---

1) 본고에서 사용한 용어 '관용어'는 '둘 이상의 어휘소가 내용적으로 의미가 특수화되어 있고, 형식적으로 구성방식이 고정되어 있는 결합관계'를 의미한다(임지룡, 1992: 192). 단어의 범주가 아니라 관용표현, 관용구로 대치할 수 있는 구를 뜻한다.

2) 한국수어 예문은 아래 표기법을 정하여 표기하였고 그림은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에서 가져왔다.

- (1) 가. [감기] [강하다]  
감기가 지독하게 낫지 않는다.
- 나. [무너지다] [강하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 다. [기다리다] [강하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 르. [소리] [강하다]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 미. [뻔뻔하다] [강하다]  
마음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 비. [열쇠] [강하다]  
아무리 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

한국수어에서 [강하다]와 결합하는 구성성분을 [감기], [무너지다], [기다리다], [소리], [뻔뻔하다], [열쇠]로 대치하여도 관용어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국어에서 ‘미역국을 먹었다’라는 관용어의 구성성분인 ‘미역국’을 ‘된장국’으로 대치하여 ‘된장국을 먹었다’라고 하면 이 구절은 더는 ‘실패하다, 낙방하다’라는 관용어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한국수어에서 [강하다]가 포함된 구절은 특수한 의미를 가진 관용어라고 보게 된 대표적인 사례이며 가장 많은 용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강하다]를 포함한 구절을 협의의 관용어로 보는 데는 형태·통사적 기준과 의미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논의의 여지가 있다.

첫째, 관용어의 형태·통사적 기준은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된 구(句) 이상의 단위여야 하며, 제한된 수의 변이형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통사적으로는 둘 이상의 구성 요소가 필수적인 결합 관계를 가져, 일종의 틀에 박힌 고정된 표현이어야 한다.’라는 것이다(문금현, 1999: 37). [강하다]는 대부분 ‘X+강하다’ 형

표기 항목	기호	예
단어	[ ]	[강하다]
한글 지문자	#	[#화확무기]
비수지 표지	{ }	{고개를 가로챌기}
단어 반복	[ + ]	[강하다+]
의문문 표지	[ 의문표지 ]	[가능하다 <sup>의문표지</sup> ]
입모양	[ '아오' ]	[강하다 <sup>아오</sup> ]
잡시 씬	{휴지}	[사람을 때리다+] {휴지} [강하다]
공간 사용	[ ] <sup>왼쪽</sup> 공간	[남부하다+] <sup>오른쪽</sup> 공간 [강하다] <sup>왼쪽</sup> 공간
문장 구분		[친구] [대화하다+]    [지시] [정말] [고집] [강하다]

4 남기현

식의 구절로 나타나며 X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상당히 많다. 아래 (2)에서 보듯이 [강하다]가 포함된 구절의 용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sup>3)</sup> 그러므로 [강하다]를 포함하고 있는 구절 모두를 관용어로 본다면 그 수는 상당할 것이다.

- (2) 가. [아픔] [강하다]  
몸을 심하게 때려도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
- 나. [기계] [강하다]  
기계가 잘 되지 않는다.
- 다. [찾다] [강하다]  
찾으려 했으나 발견하지 못할 경우
- 르. [고치다] [강하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질적이다.
- 미. [부러지다] [강하다]  
부러지지 않다/고장이 나지 않다/끄떡없다.
- 비. [철] [강하다]  
견고하다/망가지지 않고 끄떡없다.

또한 반드시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된 구 이상의 단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 (3) 가. [납부하다] [병] [없다] [강하다<sup>아오</sup>] [좋은 기회를 놓치다]
- 나. [납부하다<sup>오른쪽</sup>] 공간 {휴지} [강하다<sup>아오</sup>] 왼쪽 공간

(3)은 어떤 사람이 고액의 보험금을 받고 싶어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지만 병에 걸리지 않아 보험금을 탈 수 없다는 맥락이다(농 뉴스룸, 2021년 7월 6일). (3가)에서 [병] [없다]는 ‘병이 없다’ 즉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상태, 성질, 존재 등을 부정하는 부정문이다. 이 문장에서 [강하다]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병에 걸리지 않는 그 상황이 바뀌지 않음,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3가) 다음에 이어진 (3나)에서는 [병] [없다]를 생략하고 [강하다]만으로 표현하였는데 앞에서 말한 상황이 변하지 않음을 다시 언급한 것이다. 두 문장에서

3) 관용어를 주제로 한 특강 자료와 한국수어 교재에 실린 예이다(손원재, 2001; 장진권, 2004).

[강하다]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전체를 두고 한 말로써 [강하다]와 결합한 단어를 특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형태·통사적 기준으로 볼 때 ‘X+강하다’ 구절에서 X에서 대치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결합 구성으로 한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정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둘째, 의미적 기준으로 볼 때 [강하다] 앞에 어떤 구성성분이 대치되어도 관용어의 의미는 사라지지 않는다. 관용어의 의미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은 ‘X+강하다’ 구절의 의미가 구성요소 [강하다]의 의미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절대로, 지독하게, 아무리, 전혀…않는다’라는 의미는 관용어의 의미가 아니라 구성요소 [강하다]의 의미이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수어에서 특정 단어와 결합된 구성을 천편일률적으로 관용어라고 규정해오던 기존 견해에서 한 걸음 나아가 특정 어휘가 가진 의미를 다양한 용례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한국수어 어휘의 의미 관계를 폭넓게 고찰할 필요성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용어로 간주해온 대표적인 예로써 [강하다]가 포함된 구절에서 [강하다]는 하나의 형태에 여러 의미를 지니는 다의어임을 밝히어 관용어와 다의어 구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협의의 관용어 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수어 관용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논의들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전통적으로 한국어를 이용한 주석 표기를 기준으로 삼아 관용어를 판단해온 관행으로 인해 특정 구절의 구성성분의 개별 의미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해 관용어로 잘못 판단해온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강하다]가 사용된 용례를 수집하여 단의들을 추출한다. 4절에서는 다의어와 동형어의 어를 구분하는 기준인 어원이 수어에서는 단어가 가진 시각적 이미지가 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제안하며 [강하다]의 다의어성을 검토한다.

## 2. 한국수어 관용어 정립을 위한 선행 연구

한국 농사회에서 관용어는 한국어와 별개의 언어로서 한국수어의 독자성을 보여주고 농인들의 정서와 문화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강주해, 2004: 545-6). 관용어의 중요성만큼 많은 연구자의 주목을 받았으며 1999년대부터 관련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한국수어에서 관용수화가 곧

자연수화, 농식수화로 이해되었다(손원재, 2001, 남상석, 2005). 이러한 이해의 배경에는 한국수어에 대한 농인들의 자각이 있었다. 수어는 자연수화와 문법수화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문법수화는 국어문법에 맞춘 수어 체계이다. 농학교 현장에서 수어 사용 방향은 농학생들의 국어 문장 실력 향상을 위해 문법수화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교육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한다(손원재, 2001: 12). 국어문법을 가르치기 위한 인위적인 체계를 고안하여 보급하는 것에 대해 자연수어가 무엇인지 청인 수어 사용자들에게 인식시켜주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자연수어는 농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고유의 언어이며 그 속에 농인 특유의 관용어가 다량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관용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한국수어에서 관용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들을 구분하여 관용어의 개념을 확립하고자 한 연구들이 이어졌다(김칠관, 1999a, b, 손천식, 1999). 기본형의 변형은 문맥에 따른 어휘의 변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김칠관, 1999b: 214). 가령 [망하다]가 그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표현 ‘서서히 망하다’와 ‘폭삭 망하다’ 등으로 변형한다. 손천식(1999: 38-9)은 ‘관용표현과 혼동하기 쉬운 수화’로써 가령 ‘놀라다’라는 개념에서 ‘굉장히 놀라다’, ‘깜짝 놀라다’, ‘놀라서 자빠지다’처럼 부사적인 의미를 추가하기 위해 다른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기본 어휘의 변형들이므로 관용어와 구별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한국수어에서 관용어는 어형변화와 구별되어야 함은 분명해졌으며 이와 더불어 국어 관용어의 개념과 기준을 토대로 고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이정옥, 2005; 남기현, 2018, 2020; 허인영, 2020). 국어에서 관용표현은 ‘습관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라는 광의의 관용표현과 언어 내·외적인 조건을 갖춘 협의의 관용표현으로 구분한다(문금현, 1999). 이정옥(2005: 27)은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각 단어의 축어적인 의미가 아닌 제3의 의미를 가져야하며, 모어 화자(signer)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관용표현’이라는 기준으로 근거하여 118개 관용표현 목록을 제안하였다. 협의의 관용표현 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목록에 있는 예들 중 일부는 구성요소 중 한 요소가 생산적으로 결합할 수 있으므로 전체 목록이 관용표현인가는 문제가 제기되었다(남기현, 2018). 118개 목록은 허인영(2020)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검토되었다. 농인(韓人)의 관점에서

118개가 관용어인지 조사한 결과, 연구에 참여한 농인 세 명 중 두 명은 전체 목록 모두 관용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한 명은 두 개만 관용어에 해당한다고 응답하였다(허인영, 2020: 19). 흥미로운 연구 결과는 농인들이 목록의 표현들을 동형이의어,<sup>4)</sup> 단일어, 반의어 순으로 응답한 것이다. 본고는 관용어로 다루었던 구절들을 다의어와 구별하고자 허인영(2020) 연구에서 동형이의어로 응답한 결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동형이의어와 다의어는 하나의 표현에 둘 이상의 의미가 대응되는 의미의 복합 관계를 가진 어휘소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둘을 구별하려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형이의어는 하나의 형태에 여러 의미가 대응되며 이 의미들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다의어는 한 어휘소가 가진 중심적인 의미인 ‘기본의미’와 기본의미에서 먼저 나온 주변적인 의미인 ‘파생의미’를 가진다(임지룡, 1992: 211). 다의어에서 기본의미와 파생의미 사이에 의미적 관련성이 있지만, 동형이의어의 여러 의미는 전혀 무관하다.

허인영(2020) 연구에 참여한 세 명의 농인들은 한국수어 모어 화자로서 두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제3의 의미를 가지지 않으므로 118개 구절에서 2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관용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어휘의 의미 판단에서 모어 화자들의 언어적 직관은 매우 중요하므로 위 연구 결과는 주관적이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농인들은 [강하다]를 동형이의어로 판단하였다(허인영, 2020: 48).<sup>5)</sup>



- (4) 가. [고장] [강하다]  
       ‘끄떡없다’  
 나. [바꾸다] [강하다]  
       ‘절대 바꾸지 않다’  
 다. [철] [강하다]  
       ‘견고하다’

4) 한국수어는 소리가 아닌 손(수지 요소)의 움직임과 얼굴표정(비수지 요소)으로 이루어진 시각 언어이다. 동음이의어라는 용어보다 동형이의어라는 용어가 자연스러우므로 본고에서도 ‘동형이의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5) (4)의 밑줄은 허인영(2020)에서 동형이의어를 표시한 것으로 그대로 옮긴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다리’의 다의어가 있는 것처럼 한국수어 동형이의어도 있는 것이다(허인영, 2020: 56)”라는 진술은 다의어와 동형이의어를 같은 선상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이러한 예측은 아래 <표 1>을 통해서도 확실 시된다.<sup>6)</sup> 한국어 다의어와 한국수어 동형이의어의 예를 나란히 제시하여 한국 수어에서 복합 관계를 가진 동형이의어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동형이의어를 ‘수형은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같은 책, 47)’라고만 정의하여 의미들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표 1> 한국어 다의어와 한국수어 동형이의어

한국어 다의어		한국수어의 동형이의어	
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이나 동물의 몸통 아래 붙어 있는 신체의 부분, 즉 서고 걷고 뛰는 일 따위를 맡아 한다.</li> <li>• 물을 건너거나 또는 한편의 높은 곳에서 다른 편이 높은 곳으로 건너다닐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li> <li>• 둘 사이의 관계를 이어 주는 사람이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장</li> <li>• 대박</li> <li>• (땀이) 바쁘다</li> <li>• (인기)가 많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하다.</li> <li>• ~지 않는다.</li> <li>• 절대 없다.</li> <li>• 끄떡없다.</li> </ul>

한국수어는 자체의 표기법이 없으므로 구절의 전체 의미를 한국어 대응표현<sup>7)</sup>으로 표기할 때 그것은 의미의 덩어리를 표현한 것이므로 한국어 주석으로 구성요소 개별의 의미를 명쾌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4)를 다시 보면 구절의 의미 ‘끄떡없다’, ‘절대 바꾸지 않다’, ‘견고하다’에서 구성요소 [강하다]의 의미 ‘없다’, ‘지 않다’, ‘견고하다’를 추출하였다(허인영, 2020: 48). 그러나 역으로 구절의 의미에서 [강하다]의 의미를 뺀 ‘끄떡’과 ‘절대 바꾸다’가 [고장]과 [바꾸다]에 각각 대응된다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 (4ㄷ)에서 [강하다]([견고하다])의 의

6) <표 1>은 허인영(2020: 57)에서 <표 V-1>에서 가져온 것으로 사진을 그림으로 대체하였다.  
 7)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에서 ‘한국어 대응표현’ 옆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한국수어 동영상상이 나온다. 동영상은 ‘한국어 대응표현’을 ‘수어의 의미를 번역한 국어 단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도 한국어 대응표현이라고 하겠다.



미를 빼면 [철]의 의미를 유추할 수 없게 된다. 즉 한국어 대응표현인 ‘없다’, ‘-지 않다’, ‘견고하다’로는 정확한 의미 판단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표면적인 의미로는 세 의미 사이에 의미적 관련성이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 대응표현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용례 속에서 [강하다]의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

### 3. [강하다]의 의미 분석

[강하다]의 의미 분석은 다양한 용례 속에서 사용된 의미들을 수집한 뒤 공통된 의미들로 분류하였다.

#### 3.1. 자료수집

[강하다]가 가진 여러 뜻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농민의 언어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면접법을 사용하였다. [강하다]가 포함된 맥락을 농민들에게 제시하여 맥락 속에서 구절의 의미와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를 질의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하지 못하고 줌(zoom)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하였다. 질의응답 내용은 분석을 위해 줌 화면을 녹화하였다. 면담은 2회에 걸쳐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 면담에서는 [강하다]가 포함된 맥락을 검토하였다. 매 면담시간은 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면담 일정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었다.<sup>8)</sup> 언어제공자 3명은 40~50대 사이의 남녀 농인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방법으로 한국수어를 사용하고 농학교를 졸업했으며 현재 농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 3.2. 단어 추출


단어는 어휘소가 가지고 있는 개별 의미를 뜻한다. 한 어휘소에 하나의 단어

8) 두 번째 면담은 대상 어휘 [귀신]을 가지고 진행했으나 [강하다]로 한정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가 대응되면 단의어이고, 두 개 이상의 단의가 대응되면 다의어이다. 단의 설정은 대상 어휘의 용례 가운데 같은 단의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단의 평정과 단의들의 의미 특성을 분석하는 단의 분석으로 나뉜다(남경완, 2008: 162). 먼저 단의 평정을 보면, 한국어의 경우 사전의 용례들은 이미 단의 평정을 거친 것이지만 한국수어 어휘들은 단의 평정된 자료를 찾기 어렵다.

<표 2>은 한국수어사전에서 [강하다]의 정보이다. [강하다]의 어원적 의미는 <달걀 깨트리기>이다. 달걀을 모로 쥐어 깨뜨리기 어렵다는 것을 상징함으로써 이루어진 단어이다(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 2003: 67).

<표 2> 한국수어사전 [강하다] 정보

[강하다]	수형 설명	한국어 대응표현
	<p>오른 주먹의 1·5지를 펴서 약간 구부려 오른쪽 어깨 높이에서 가슴 앞으로 힘주어 내린다.</p>	<p>강하다, 견고하다, 굳다, 단단하다, 딱딱하다</p>

한국수어사전에서 [강하다]의 정보는 수형 설명과 한국어 대응표현이며 단어 혹은 동형이의어 여부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강하다]의 용례를 수집하기 위해 유튜브, 수어 교육자료를 활용하였다. 농식수어통역반 교육자료(박광철, 2020)는 풍부한 용례를 제공하므로 단의 설정을 위한 면담 자료로 사용하였다. [강하다]가 포함된 구절 80개를 언어제공자와의 면담을 통해 단의를 확인하여 같은 단의로 판단할 수 있는 단의들을 묶고 단의들의 의미 특성을 아래에 제시하였다. 아래 예문은 농식수어통역반 교육자료, 면담 내용, 농 뉴스룸, 유튜브, 경기도수어교육원 교육자료에서 발췌하였다.

### 3.2.1. 단단하다, 튼튼하다

[강하다]는 ‘사물이 외부의 힘에 의해 모양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다’라는 뜻이다. 사람의 신체의 경우에는 ‘몸이 단단하고 튼튼하다’라는 의미이다.

- (5) 가. [탁자] [나무] [강하다]  
 나. [두 자동차가 충돌하다] [자동차] [지시<sup>책</sup>] [강하다]  
 다. [TV] [20년] [강하다] [고장나다] [없다] [강하다]  
 라. [집] [만들다] [세우다] [완성하다] || [집이 흔들리다] [금이 가다] [지진] {고개 좌우로 흔들} [강하다] [안전하다]  
 마. [냉장고] [지시] [강하다] [냉장고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살펴보다] [앞으로] [오래] [10년] [사용] [가능하다]

(5가)은 나무로 된 탁자의 상판이 단단하다는 뜻이다. (5나)은 두 자동차가 세계 충돌했는데 한 차만 심하게 찌그러졌다는 의미이다. 찌그러지지 않은 차에 대해 [강하다]를 표현할 때 차가 ‘단단하다(튼튼하다)’라는 의미이다. (5다)은 TV가 20년이 되었는데도 고장이 나지 않고 튼튼하다는 뜻이다. (5라)은 집을 튼튼하게 지어서 지진에 안전하다는 뜻이다. (5마)은 냉장고가 튼튼해서 앞으로 10년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6) 가. [몸] [철] [강하다]  
 나. [사람을 때리다+] [몸] [강하다<sup>아오</sup>]

(6가)은 몸이 강철같다는 뜻이다. (6나)은 이종격투기에서 상대 선수를 수차례 가격했는데 끄떡없는 상대 선수의 몸이 강철같다는 의미이다.

[강하다]는 사물이 단단하고 튼튼하다, 그리고 사람의 몸이 아주 단단하고 굳세다는 의미이다. ‘책상, 자동차, 집, 냉장고, 몸’과 같은 대상을 나타내는 논항 다음에 [강하다]가 결합하며 서술어로 기능한다.

### 3.2.2. 세다

햇볕, 전기 등의 기세가 보통보다 크거나 강하다는 의미이다.

## 12 남기현

- (7) ㄱ. [요즘] [햇볕이 내리 쬐다] [독하다] [강하다<sup>아오</sup>]  
ㄴ. [오늘] [꺼지다] [없다] [지시<sup>원형</sup>]/[강하다] [오래가다]

(7ㄱ)은 요즘 햇볕이 매우 강하다라는 의미이다. (7ㄴ)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에너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형광등이 꺼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3.2.3. 상황 변화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강하다]는 상황 변화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8) ㄱ. [버스] [기다리다<sup>불을 부풀림</sup>] [강하다<sup>아오</sup>]  
ㄴ. [기차] [출발하다] [강하다<sup>아오</sup>]  
ㄷ. [음식] [주문하다] [기다리다] [오다] [강하다<sup>아오</sup>]  
ㄹ. [차레가 오다] [기다리다] {휴지} [강하다<sup>아오</sup>]  
ㅁ. [비가 오다] [강하다<sup>아오</sup>]  
ㅂ. [집] [가다] [강하다<sup>아오</sup>]  
ㅅ. [기다리다] [전화를 받다] [강하다<sup>아오</sup>]  
ㅇ. [나무] [기둥] [홍시] [매달려있다] [눕다] [홍시가 아래로 떨어지다] [혹시]  
[기다리다] [강하다+] [하염없이 기다리다]

(8)은 화자가 원하는 상황이 실현되지 않음을 표현한다. (8ㄱ)은 농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아무리'라는 해석은 [기다리다]와 동시에 나타난 불을 부풀린 비수지 요소에서 연유한다. 기차(전철, 비행기 등)가 출발하지 않는 경우, 주문한 음식이 오지 않는 경우, (줄을 서 있는데) 자기 차례가 오지 않는 경우, 비가 오지 않는 경우, (모임 후 시간이 늦었는데) 상대방이 집에 가지 않는 경우, 기다리고 있는 전화가 오지 않는 경우, 홍시 나무 밑에 누워 홍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홍시가 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화자가 원하는 상황이 아무리 기다려도 실현되지 않음을 뜻한다. 좀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의 강력함에 대한 화자의 감정은 [강하다]와 동시에

나오는 ‘아오’라는 입 모양으로 표현된 감탄사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 한국어로 ‘아오’처럼 발음한다.

- (9) 가. [가스레인지를 켜다+<sup>한때</sup>] [강하다<sup>‘아오’</sup>]  
 나. [시험] [노력하다] [합격하다] [강하다<sup>‘아오’</sup>]  
 다. [스마트폰을 터치하다+] [강하다<sup>‘아오’</sup>]  
 라. [전화를 걸다+] [강하다<sup>‘아오’</sup>]  
 마. [밤새다] [잠을 자다] [강하다]  
 바. [핸드폰을 터치하다+] [강하다<sup>‘아오’</sup>]  
 사. [운동하다+] [뱃살이 빠지다] [강하다]  
 아. [자국] [지우다+] [깨끗하다] [강하다<sup>‘아오’</sup>]  
 자. [산불이 나다] [호수로 물을 뿌리다+] [꺼지다] [강하다<sup>‘아오’</sup>]  
 차. [약] [먹이다+] [강하다+<sup>의문표정</sup>] [병] [낫다] [강하다] [안되다]  
 카. [수도꼭지를 틀다+] [노력하다] [물] [강하다<sup>‘아오’</sup>] || [노력하다] [강하다]  
 타. A: [당신] [이름<sup>의문표지</sup>]  
 B: {‘가만’ 입모양} [기다리다] {한참을 생각해내다}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강하다<sup>‘아오’</sup>] [당신] [이름<sup>의문표지</sup>]

어떤 행동을 여러 차례 시도해도 성취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하다]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9)는 가스레인지를 계속 켜봐도 켜지지 않고,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도 합격하지 못하고, 스마트폰 화면을 계속 터치해도 핸드폰 화면이 움직이지 않고, 전화를 계속 걸어도 전화 통화에 실패하고, 밤새도록 잠을 자려 해도 잠이 오지 않고, 운동을 계속해도 뱃살이 빠지지 않고, 자국을 지우려고 해도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고, 산불을 끄려고 아무리 물을 뿌려도 꺼지지 않고, 약을 여러 차례 먹여도 병이 낫지 않고, 수도꼭지를 계속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고, (A가 치매가 있는 B에게 이름을 물어보는 상황) 10분 ... 50분이 지나도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아무리 애를 써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이다. 특히 (9ㄷ)에서 [노력하다] [강하다]는 아무리 노력해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의미로서 상황 변화의 불가능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또한 ‘계속해서 시도했는데’라는 의미는 [수도꼭지를 틀다+], [가스레인지 켜다+] 등 단어의 반복에서도 나타난다.

아래 (10)의 상황은 화자가 청자에게 먹지 못하겠냐고 여러 차례 물어보며

걱정하는 경우이다. [강하다]를 반복한 것은 여러 차례 시도해도 먹을 수 없음을 뜻한다. ‘안돼’ 입 모양도 반복하지만 생략해도 ‘먹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안돼’ 입 모양을 동반함으로써 의미를 더 분명하게 표현하는 효과가 있다. 청자가 아무리 먹으려고 노력하지만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10) [먹다] [강하다+<sup>의문표정/안돼+</sup>] [걱정하다]

[강하다]가 ‘단단하다, 튼튼하다’라는 의미일 때는 해당 속성을 가진 대상을 서술하는 데 비해 ‘상황 변화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일 때는 ‘(무엇을) 기다리다, 기억해내다, 조작하다, 노력하다’ 등 주체의 반복적인 행위가 전제된다. 그러므로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강하다] 앞에 오는 경향이 있다.

아래 (11)의 용례들은 반복적인 시도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려는 경향이 강하다.

- (11) 가. [경제] [발전하다] [강하다]
- 나. [들키다] [강하다]
- 다. [술] [취하다] [강하다]
- 르. [일] [끝나다] [강하다]
- 미. [결혼하다] [강하다]
- 비. [배고프다] [강하다]
- 스. [웃다] [강하다]

(11)은 경제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경찰에게) 들키지 않음, 술에 취하지 않음, 일이 끝나지 않음, (오랫동안 보아온 지인이 아직도) 결혼하지 않음, 배고프지 않음, 좀처럼 웃지 않는다는 뜻이다.

[강하다] 앞에 위치한 동사가 진술하는 상황이 좀처럼 바뀌지 않음을 뜻한다. (9)의 상황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화자의 반복적인 시도가 있다면 (11)은 그렇지 않다.

### 3.2.4. 끄떡없다(문제없다)

[강하다]는 ‘끄떡없다(문제없다)’를 의미한다.

- (12) ㄱ. [비가 오다] [강하다<sup>아오</sup>]  
 ㄴ. [비가 오다] [강하다<sup>다문 입술을 앞으로 내뻗</sup>]

(12)에서 [강하다]의 수지 요소는 같고 비수지 요소는 다르다. (12ㄱ)은 ‘비가 오지 않다’라는 의미로 [강하다]와 함께 ‘아오’ 입 모양 혹은 작고 동그랗게 벌린 입 모양을 동반한다(<그림 1a, b>). 이 입 모양은 기다려도 비가 오지 않을 때의 답답함, 왜 비가 오지 않는지 의아한 심정을 드러낸다. (12ㄴ)은 ‘비가 와도 끄떡없다’라는 의미이다. [강하다]는 다문 입술을 앞으로 내밀거나 양쪽 입꼬리를 아래로 내리는 입 모양을 동반한다(<그림 1c, d>).



‘끄떡없다(문제없다)’의 의미로 사용된 예문은 아래와 같다. 화자가 자신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 호언장담하는 경우이다.

- (13) 가. [운전하다] [강하다+]  
 나. [눈이 내리다] [강하다+]  
 다. [시간] [충분하다] [강하다+]  
 르. [한국] [걱정] [없다] [강하다]  
 로. [시다] [무덤덤하다] [강하다]  
 비. [밤] [건다] [무섭다] [무감각하다] [강하다+]  
 스. [차가 차 옆으로 붙다] [무덤덤하다] [강하다]  
 오. [고층빌딩] [무섭다] [없다] [무덤덤하다] [강하다]  
 자. [손을 놓다] [-면] [지시<sup>반원</sup> 수동] [괜찮다] [지시<sup>반원</sup> 수동] [강하다]  
 차. [화학무기가 퍼지다] [비가 내리다] [저기] [멀다] [저기] ||  
 [사람] {고개를 살짝 좌우로 흔들며 다문 입술을 앞으로 내밀} [강하다+]  
 카. [오늘] [부터] [예뵤] [-면] [앞으로] [치매] [막다] [가능하다] ||  
 [강하다+] [다음] [낭패를 보다]

(13)은 (비가 많이 오는 밤) 운전하는 데 문제없다, (추운 겨울) 눈이 펄펄 내려도 문제없다, (공항에 가는데) 시간 여유 있다, 시간 충분하다, (코로나 시기에 해외에서는 사재기가 심한데) 한국은 문제없다, 신 음식을 먹어도 아무렇지 않다, 밤길을 가도 아무렇지 않다, 다른 차가 자기 차에 바짝 붙어도 끄떡없다, 고층빌딩에 올라도 무섭지 않고 아무렇지 않다, (전 세계가 연대하여 탄소를 줄이는 운동을 벌이는데) 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는 괜찮다, 화학무기가 비를 통해 먼 지역으로 전달되는데 먼 지역 사람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한다, 오늘부터 치매를 예방하면 막을 수 있지만 괜찮다고 자만하면 치매가 올 수 있다는 의미이다. (13) 맥락에서 수어 화자는 다문 입을 앞으로 내밀며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이고 자신감에 찬 표정을 짓는다(<그림 1d>). 그리고 [강하다]를 2-3회 정도 짧게 반복하는 편이다.

아래 (14)는 남들이 따라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놀라움이나 감탄 등 주관적인 느낌, 감정, 생각을 표현하는 상황이다.



- (14) 가. [뜨겁다] [강하다<sup>아오</sup>]  
 나. [춥다] [강하다<sup>아오</sup>]  
 다. [하루] [12시간] [혼자] [운전하다] [참다] [강하다<sup>아오</sup>]  
 르. [고추를 씹어 먹다] {놀라서 쳐다보다} [혀] [강하다<sup>아오</sup>]  
 모. [○○] [돈] [횡령] || [지시] [뻔뻔하다] [강하다]  
 비. [여자를 혼내다] [심하다] || [지시] [참다] [강하다<sup>아오</sup>]

(14)는 누군가가 뜨거운 사우나 안에서 잘 버틴다고 말하는 상황, 매우 추운 날 반소매를 입은 사람에게 추위에 끄떡없다고 말하는 상황, 하루 12시간 혼자서 운전을 한 사람에게 잘 버틴다고 말하는 상황, 매운 고추를 마구 씹어 먹는 사람에게 매운 것을 잘 먹는다고 말하는 상황, 돈을 횡령하고도 뻔뻔한 ○○에게 정말 뻔뻔하다고 말하는 상황, 누군가에게 심하게 혼나는 여자를 보고 잘 버틴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13)은 화자가 자신의 행동에 호언장담하는 것이라면 (14)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놀라움, 감탄의 감정, 느낌, 생각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비수지 요소가 차이가 난다. 앞의 경우는 다문 입술을 앞으로 내밀거나 양쪽 입꼬리를 아래로 내리는 입 모양을 뒤의 경우는 ‘아오’ 입모양을 동반한다.

### 3.2.5. 자기 생각이나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고집] [강하다]는 고정된 형식으로 사용하며 ‘자기 생각이나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라는 의미이다.

- (15) 가. [고집] [항복] [내가 지다] [고집] [강하다]  
 나. [만나다] [안하다] || [고집] [강하다]  
 다. [친구] [대화하다] || [지시] [정말] [고집] [강하다]  
 르. [△△] [빌려주다] [안하다] || [고집] [강하다]  
 모. [명령하다] [거역하다] || [고집] [강하다]  
 비. [입을 다물다] || [고집] [강하다]  
 스. [차분하다] || [고집] [강하다]  
 오. [돈을 각출하다] [싫다] || [고집] [강하다]

(15)는 상대의 고집에 항복할 때, (두 사람이 화해하도록 만남을 주선하려는 데) 한쪽이 만나기를 거부할 때,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데) 친구와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물건을 빌려주지 않을 때,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계속 추궁해도) 입을 열지 않을 때, 차분하게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을 때, (모임에서) 각축하자는 제안을 완강히 반대하고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을 때이다.

맥락 속에서 [고집] [강하다]는 ‘고집 세다’, ‘말이 안 통하다’, ‘절대 입을 열지 않다’, ‘말을 듣지 않는다’, ‘반대하다’ 등 여러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공통 의미를 ‘자기 생각이나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로 볼 수 있다. [고집] [강하다] 구절이 ‘자기 생각이나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고집이 세다’의 뜻은 아니지만 주체가 사물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고집이 세다’의 주체는 인간이지만 한국수어에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사물도 주체가 될 수 있다. 마치 의인화된 표현처럼 사물이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16) ㄱ. [가스레인을 켜다+] [고집] [강하다]  
 ㄴ. [뚜껑을 열다+] [고집] [강하다]  
 ㄷ. [지시<sup>샤워기</sup>] [고집] [강하다]  
 ㄹ. [부러뜨리다+] [고집] [강하다]  
 ㅁ. [수리하다] [안되다+] [고집] [강하다]

(16)는 가스레인지가 켜려고 해도 안 켜질 때, 용기 뚜껑이 안 열릴 때, 샤워기에서 물이 나오지 않을 때, 물건을 반으로 자르려는데 잘리지 않을 때, 물건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수리가 안 될 때이다. 사물을 의인화하여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을 표현한다. [고집]을 생략해도 문장성립에는 문제가 없다. [고집]을 생략했을 경우 ‘고집이 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황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다.

### 3.2.6. 정신적으로 강하다

[강하다]는 정신적인 강함을 의미한다.

- (17) 가. [굳인] [정신] [강하다]  
 나. [반장] [책임] [강하다]  
 다. [일본] [자존심]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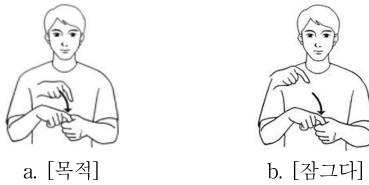
(17)은 굳인 정신이 강하다, 반장이 책임감이 강하다, 일본은 자존심이 강하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강하다]의 6개 단의를 예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단의는 ① ‘(사물이나 사람이) 단단하다(튼튼하다, 굳세다)’, ② ‘상황 변화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③ ‘세다’, ④ ‘끄덕없다(문제없다)’, ⑤ ‘정신적으로 강하다’이다. 그리고 고정된 표현인 [고집] [강하다]는 ⑥ ‘자기 생각이나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라는 의미이다.

## 4. [강하다]의 다의성

### 4.1. 다의어 판별 기준

일반적으로 언어에서 다의어와 동형의의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원이다. 한국수어에서 단어의 어원은 단어가 가진 시각적 이미지와 관련이 깊다. 수어 어휘는 도상성에 기초한 경우가 상당하다. 수어 단어를 구성하는 손의 모양(수형)과 움직임(수동)은 사물 그 자체와 사물의 움직임을 도상적으로 재현한다. 도상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 경우도 있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 전자의 경우에는 어원 파악이 쉽지 않다. 시각적 이미지를 공유한 단어들은 같은 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령 [목적]과 [잡그다]의 어원을 살펴보면 [목적]의 어원적 의미는 <과녁을 맞히는 것>으로서, 그 원형적 의미는 ‘적중(的中)’이고 [잡그다]의 어원적 의미는 <(자물쇠의) 쫓대를 집어넣는 것>이다(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 2003). 두 단어는 형태는 같으나 어원은 다르므로 동형의의어로 볼 수 있다. 즉 전혀 다른 기원에서 시작한 경우이다.



[그림 2]

다의어의 예로는 ‘가시’를 들 수 있다. 한국수어사전에서 ‘가시, 날카롭다, 뾰족하다, 예리하다, 예민하다’라는 한국어 대응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가시]와 [날카롭다]는 속성의 유사성에 따른 다의 관계이다(김칠관, 2010: 145).



[그림 3] [가시]

#### 4.2. 엄밀한 의미에서의 다의어

한국수어에서 다의어를 판단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비수지 요소이다. 수어 단어에서 수지 요소와 비수지 요소는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는 변별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건청인]과 [뱀다]는 수지 요소(수형, 수동, 수위, 수향)는 같지만 비수지 요소(얼굴표정)가 달라서 최소대립쌍을 이룬다. [건청인]은 입과 귀가 잘 돌아감을 나타내는 동작<sup>9)</sup>이며 [뱀다]는 입감을 붙어내는 동작이다(한국수화사전, 2005: 67, 489). 두 단어 모두 ‘말하다’와 ‘먹다’라는 의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입 앞에서 산출하고 수동도 같다. 다만 비수지 요소가 다름으로써

9) 한국수화사전(2005: 67)에는 양손을 모두 사용한 형태가 수록되어 있지만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에는 입 앞에서 움직이는 한 손만 관여한 형태가 등재되어 있다. 두 사전은 연속선 상에 있다. 한국수화사전(2005)이 수화 웹 사전(2010)을 거쳐 2016년 한국수어사전으로 편찬되었다(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2021년 10월).

별개의 단어가 된다. 두 단어에서 수위와 수동은 같으나 의미적 관련성은 없다.



a. [건청인]



b. [맷다]

[그림 4]

본고에서 [강하다]가 세 가지 비수지 요소를 동반함을 관찰하였다. 첫째, 작고 동그랗게 벌린 입 모양, 둘째, 다문 입술을 앞으로 내밀거나 양쪽 입꼬리를 아래로 내린 입 모양, 셋째, ‘아오’ 입 모양이다. 작고 동그랗게 벌린 입 모양은 어떤 상황이 되기를 기다리지만 좀처럼 실현되지 않을 때 왜 실현되지 않는지 의아해할 때 나타난다. 다문 입술을 앞으로 내밀거나 혹은 양쪽 입꼬리를 아래로 내린 입 모양은 자신만만하며 호언장담할 때 나타난다. ‘아오’ 입 모양은 어떤 상황이 되기를 기다리지만 좀처럼 실현되지 않을 때와 남들이 따라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 놀라움이나 감탄 등 주관적인 느낌, 생각을 표현할 때 나타난다. [강하다]는 수지 요소는 같은데 비수지 요소가 달라지지만 [건청인]-[맷다] 쌍처럼 별개의 단어로 보기는 어렵다. (12)를 다시 보면, (12ㄱ)은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다’라는 의미이고 (12ㄴ)은 ‘비가 와도 끄떡없다’라는 의미이다.

(12) ㄱ. [비가 오다] [강하다<sup>‘아오’</sup>]

ㄴ. [비가 오다] [강하다<sup>‘다문 입술을 앞으로 내밀’</sup>]

수지 요소는 같으나 ‘아오’ 입 모양과 다문 입술을 앞으로 내민 입 모양이 다르다. 비수지 요소의 차이로 의미가 다르지만 수지 요소 [강하다]의 공통 속성은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의미의 관련성을 갖고 있다. 전자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는 상황의 견고함, 변함없음, 변화 불가능함 등을 나타낸다면

후자는 화자가 비를 맞아도 끄떡없음, 문제없음을 나타낸다. 강함의 주체가 다를 뿐이다. 화자가 자신만만해서 말할 때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놀라움, 감탄의 감정, 느낌, 생각 등을 표현할 때 비수지 요소가 다르다. 비수지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강하다]가 다른 단어라고 볼 수 없고 [강하다]를 표현할 때 화자의 감정, 느낌, 생각을 드러내는 것으로 화용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sup>10)</sup>

### 4.3. 다의어 발생 양상

다의어 생성의 원인 중 하나인 적용의 전이를 통해 [강하다]를 다의어 발생 양상을 설명하기로 한다.

#### ① ‘단단하다, 튼튼하다’

[강하다]는 달걀을 모로 쥐어 깨뜨리기 어렵다는 것을 상징한다(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 2003: 67). 이 어원에 따르면 [강하다]는 달걀이라는 구체적인 사물의 물리적인 속성인 ‘단단하다, 튼튼하다’라는 의미에서 출발한다. 이 의미를 기본의미로 보고 여기에서 여러 의미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세다’

‘세다’는 기세가 크거나 강함을 뜻한다. 햇빛이나 전기와 같은 외형적인 형태를 취하지 않는 대상은 단단함, 튼튼함 등의 속성으로 표현할 수 없다.

#### ③ ‘상황 변화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화자가 직면한 상황이 매우 강력하여 좀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의미는 구체적인 사물의 단단함, 튼튼함과 다르다. 기본의미인 ‘단단하다, 튼튼하다’가 사물이 물리적으로 혹은 사람이 신체적으로 강하다는

10) 원성욱 외(2021: 230)에서는 음운·형태적 측면에서 ‘엄밀한 의미의 다의어가 존재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엄격한 의미의 다의어의 존재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의어의 대상이 된 어휘들이 비수지표지가 미세하게 달라지거나 마우딩이 동반되는 경우에 수어소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다의어가 아닌 별개의 단어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시각언어이자 담화체 언어라는 한국수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속성을 표현한다면 이 의미는 화자가 의도한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떠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시도하고 노력을 기하지만, 화자가 직면한 상황이 매우 강력하여 도저히 의도한 결과를 이뤄내지 못함을 뜻한다.

④ ‘끄떡없다(문제없다)’

앞의 세 의미는 사물, 상황의 강력함을 의미한다면 이 의미는 상황에 직면한 당사자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호연장담할 때,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에 대해 평가할 때 표현할 수 있는 의미이다.

⑤ ‘자기 생각이나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고집] [강하다] 구절의 의미이다. 다른 단의들이 다양한 대상을 취하는 데 반해 이 구절은 [고집]과 결합한다. ‘고집’이라는 의미에 한정되지 않고 외부에 의한 변화를 거부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한다.

⑥ ‘정신적으로 강하다’

추상적인 대상의 속성이 강함을 뜻한다.

위 단의들은 의미적 연관성을 가진다. 사물의 단단함(튼튼함), 사람의 튼튼함, 상황의 불변성, 정신의 강인함, 추상적인 대상의 강력함은 구체적인 강함에 서 추상적인 강함으로 전이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 5. 마무리

한국수어에서 [강하다]가 포함된 구절을 관용어로 간주해왔다. 구절의 한국어 대응표현에 근거하여 두 단어가 합쳐져 제3의 의미가 있으므로 관용어로 본 것이다. 또한, 제한된 용례만을 다룸으로써 관용어로 보았다. 본 연구는 특정 어휘가 가진 의미를 다양한 용례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한국수어 어휘의 의미 관계를 폭넓게 고찰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관용어로 간주해온 대표적인 예로써 [강하다]가 포함된 구절에서 [강하다]가 여러 의미를 지니는 다

의어임을 밝히어 관용어와 다의어 구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특히, 한국수어 어휘의 의미를 한국어 대응표현이 아닌 상황과 맥락 속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첫째, 전통적으로 한국수어 관용어의 의미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대응표현의 의존도가 높았다. 그러나 수어 맥락 속에서 [강하다]의 의미를 파악할 때라야 한국어의 간섭 없이 한국수어 어휘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둘째, 한국수어에서 다의어와 동형이의어를 구분하기 위해 어원, 즉 시각적 이미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한국수어는 도상성에 기초하여 생성된 단어들을 분석할 경우 대상 어휘들이 시각적 이미지가 같다면 같은 뿌리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비수지 요소가 다를 경우 다의어로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주목하게 하였다. [강하다]는 수지 요소는 같지만 비수지 요소가 다르므로, 별개의 어휘소로 간주해야 하지만 수지 요소가 우연히 형태가 같은 것이 아니며 동일한 기원을 가진다. [강하다]의 비수지 요소는 단어 차원에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다]를 표현할 때 화자의 감정, 느낌, 생각을 드러내는 것으로 화용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끝으로, [강하다]에 한정하여 관용어와 다의어의 구분 문제를 다루었다는 한계를 지니지만 향후 한국수어의 어휘가 가진 의미를 다양한 용례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어휘의 의미 관계를 폭넓게 고찰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강주혜(2004), “수화의 관용구”, 한국표준수화사전 편찬을 위한 공청회, 문화관광부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 추진위원회, 545-550.
- 경기도수어교육원(2018), 수어가 눈에 속,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 김칠관(1999a), “이디엄 현상을 중심으로 본 한국수화의 의미구조”, 수화연구, 2, 2-17.
- 김칠관(1999b), 수화 지도의 이론과 실제, 인천성동학교.
- 김칠관(2010), 한국수화언어학입문, 미간행자료.
- 남경완(2008), 국어 용언의 의미 분석, 국어학회.



남기현(2018), “한국수어에서 관용표현 개념 정립을 위한 제언”, 한국어 의미학, 60, 93-120.  
남기현(2020), “한국수어 교육용 관용표현 연구”, 한국어 의미학, 68, 1-23.  
남상석(2005), “관용수화의 표현방법”, 제16회 수화통역사 재보수교육, 한국농아인협회, 33-38.  
문금현(1999), 국어의 관용표현 연구, 태학사.  
박광철(2020), 농식수어통역반, 교육자료.  
손원재(2001), “자연수화의 이해”, 제3회 수화통역사 연수자료, 한국농아인협회, 11-19.  
손천식(1999), “한국수화의 관용표현”, 수화·농문화를 생각하는 세미나, 한국수화언어학회, 31-41.  
원성옥·김유미·남기현·김성완(2021), 한국수어 문법, 국립국어원.  
이정옥(2005), “한국 수화 관용표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나사렛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지룡(1992), 국어 의미론, 탐출판사.  
장진권(2004), 알기 쉽고 재미있는 한국수화, 한국농아인협회.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추진위원회(2003), 한국수화 어원사전, 문화관광부 한국농아인협회.  
한국표준수화규범 제정추진위원회(2005), 한국수화사전, 문화관광부·한국농아인협회.  
허인영(2020), “농인의 관점에서 본 한국수어 관용표현에 대한 문제 제기”,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사전: <http://sldict.korean.go.kr>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샘플, 마침표:  
<https://news.korean.go.kr/index.jsp?control=page&part=view&idx=13036>  
농뉴스룸 치매: <https://www.youtube.com/watch?v=ENt7ohaZ-OI&t=2570s>  
농뉴스룸 탄소중립: <https://www.youtube.com/watch?v=JoE3FIKMqRU&t=1788s>  
농뉴스룸 도쿄 올림픽: <https://www.youtube.com/watch?v=FLCStlinXE4&t=1699s>  
농뉴스룸 원자력발전소의 위험: <https://www.youtube.com/watch?v=wecqmOGu2g8&t=1818s>  
수화형식 강하다1-1: <https://www.youtube.com/watch?v=Muj5Xs5bYw>  
수화형식 강하다1-2: [https://www.youtube.com/watch?v=\\_cWExoO-Ets](https://www.youtube.com/watch?v=_cWExoO-Ets)

남기현  
연세대학교(시간강사)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03722  
전화 번호: 02-2123-3034  
전자 우편: chironam@hanmail.net

원고 접수일: 2021.07.23.  
원고 수정일: 2021.11.11.  
게재 확정일: 2021.12.15.

